익숙한 음식에 대한 낯설고 흥미로운 이야기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음식 안내서

황교익 지음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 나라사람들은 식당 종업원에게 '이모'라 부를까?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무릎을 치는 순간이 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그렇다.

'수요시식회', '알쓸신잡' 등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과 친숙한 황교익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한다. 육개장이 지닌 '포용력', 다시 말해 소고기의 감칠맛, 고춧가루의 칼칼함, 대파와 마늘의 달짝지근한 맛 등이 어우러진 맛을 한국인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음식 전문 작가인 황교익이 펴낸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음식 안내서'는 음식들의 유래와 발자취를 담았다. 우리 땅, 우리 바다 먹거리에 담긴 우리의 삶을 저자는 구수한 입담과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미역국이다. 지구촌에는 저마다 생일을 기념하는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 생일 음식인 미역국에도 다양한 의미가 투영돼 있다. 과학적인 접근, 일테면 산모의 건강, 영양학적 가치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혹독한 겨울을 넘겨 미역이 탄생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옛사람의 생각에는 미역과 인간의 탄생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성과 고통의 유사성을 든다.

우리 음식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유래가 담겨 있다. 바닷가 대표음식 물회(왼쪽)와 구수한 맛의 보리밥. 〈시공사 제공〉

'밴댕이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친숙한 '밴댕이' 이야기는 흥미롭다. 저자는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밴댕이젓 한 독을 분배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돼 있다고 한다. 원문에 '蘇魚', 즉 '소어'가 등장하는데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밴댕이라고 번역했다고 제시한다.

밴댕이는 그물에 걸려 배 위에 오르자마자 죽을 만큼 성질이 급하다. 어부들은 살아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고, 여기에서 '밴댕이소갈딱지'라는 말이 유래했다.

삭힌 홍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저자에 따르면 홍어의 주산지는 황해였다. 그러나 홍어를 강하게 숙성해서 먹진 않았다. 전라도에서 특별히 삭힌 홍어를 많이 먹게 된 것은 날씨 때문이었다. 겨울에도 홍어를 바깥에 두면 적당히 삭혀지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호사가들은 남도음식의 특징으로 발효음식을 꼽았다. 개중에 푹 삭힌 홍어는 독보적으로 돋보였다. 한국음식을 알려면 남도음식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푹 삭힌 홍어 맛을 알아야 하는 듯이 떠들었다. 삼합이라는 말도 이때에 만들어졌다."

'식당에 '이모'가 사는 까닭'에 대해서도 저자는 나름의 추론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식당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른다. 196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떠난 농민은 노동자가 됐다. 얼마 전까지 농민이었던 이가 밥을 사먹으려니 어색하고, 마찬가지로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도 원래는 농민이었던 탓에 서로 돈을 받고 밥을 파는 게 어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정사와 만담을 버무려 흥미롭고도 풍성하다. 익숙했던 음식에 이토록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시공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람들은 왜 비합리적인 미신에 마음을 빼앗길까

'믿습니까? 믿습니다!…미신의 역사'

오후 지음

일간지 신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 하나는 아마도 '오늘의 운세'일 것이다.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은 스마트 폰 '점신' 앱으로 운세를 확인할 터다. 연말연시면 점집은 문전성시고, 당신의 성격을 파악해준다는 MBTI 성격유형테스트도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로마 트레비 분수에는 매년 13억원의 동전이 쌓인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던진 돈이다. 트레비 분수만 그렇지는 않을 터. 세상의 거의 모든 분수 안에는 동전이 가득하다. 대한민국에는 약 50만명의 점술가가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산업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과학의 시대, 이성과 합리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사람들은 왜 미신 같은 비합리적인 믿음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등의 책을 펴낸 오후가 이번에는 미신에 대한 책 '믿습니까 ? 믿습니다!-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해온 미신의 역사'로 독자들을 만난다.

인류의 탄생,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 종교와 비슷한 미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과학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혀낸다해도 미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믿든 말든 미신은 역사를 만들어왔고, 이는 미신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

저자는 수많은 미신 중에서도 사주, 타로, 점성술, 별자리, 관상, 손금, 신점, 풍수지리, 수맥, 혈액형, 성격론, MBTI를 비롯해 종교와 사상, 일부 과학까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해왔는지 다루고 있다. '재미가 없는 것은 죄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작가 소개글 처럼 정치, 역사, 문화, 사회, 사상, 종교 등 다방면의 분야를 섭렵한 그의 글은 지식과 함께 유쾌한 재미를 동시에 선사한다.

책은 프롤로그 '믿는 사람들', 에필로그 '미신과 함께'를 비롯해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 '미신의 탄생-순리를 거스르는 순리'에서는 고대 인류가 미신을 믿었다는 근거 중 하나인 동굴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류문명을 일으킨 최대 공신은 미신이며 그 미신의 이름은 '농경'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농경이 인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야말로 미신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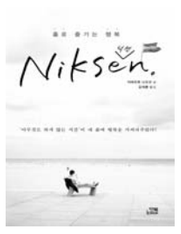
이어 '서양의 미신-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종교-미신도 프랜차이즈', '정치-미신을 믿는 지도자들', '사상-사라지지 않는 유령', '현대-환상의 세계, 호구의 세계'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양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주역'의 음과 양을 숫자에 적용해 '이진법'을 고안한 사실, 세상을 지배하기에는 손금이 다소 짧다는 점쟁이의 말에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 손금을 늘려버린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일화도 만날 수 있다.

〈동아시아·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홀로 즐기는 행복 Niksen='Niksen(닉센)'은 네덜란드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무감이나 생산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냥 멍때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일단 하던 것을 모두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고 머릿속을 텅 비워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을 텅 비우는 '닉센타임'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전한다. 〈잇북·1만5000원〉

▲치유하는 인간=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이자 심리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20년간 수천 명의 사람을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안아주기·공감·판단 중지·수용·애도·친밀감·관계망·성장 등 8가지의 힐링 요건을 제시하며 학문적 이론과 자신의 경험, 내담자들의 사례를 설명한다.

〈EBS BOOKS·1만6000원〉

▲텔로미어 식단=염색체의 끝단에 자리 잡고 있는 텔로미어는 오래전부터 '생명 연장'의 비밀을 풀 열쇠로 과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텔로미어 식단 연구가인 이채윤은 텔로미어에 좋은 식품 25가지 효능을 최대한 높인 조리법과 레시피를 공개하며 채소와 과일, 곡류, 생선 등 25가지 식품의 영향과 효능, 조리법, 활용법 등을 제시한다.

〈아이리치코리아·1만6000원〉

▲아름다운 부모들의 이야기3='아름다운 부모들의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일상 안에서 이뤄지는 서른네 편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가족들이 일상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평소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서로간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알려준다.

〈아훈·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무지개 파라솔='수천 수만 수억 개의 빗방울 중 내 이마를 처음 토독, 두드린 빗방울' 유강희 시인의 다섯번째 동시집이다. 1부 '내 이마를 토독', 2부 '개미는 우쭐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 3부 '이렇게 낮게 내려온 무지개는 처음 봐', 4부 '멀리 갔던 그 새가 다시 날아와'로 구성됐다. 아이들과 투명하게 교감하고, 만물의 새로움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시인의 언어들이 담겨 있다.

〈문학동네·1만1500원〉

▲우리 집에 늑대가 살아요='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라는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아이의 시각으로 묘사한다. 피해자인 여자아이의 내레이션으로 가정 폭력의 현실적인 모습을 오롯이 들려주며, 가정 폭력을 용기 있기 대처하는 모녀의 모습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어린이 독자들에게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로 고통받는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레·1만원〉

▲에드워드 호퍼=20세기 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 그가 유년기부터 위대한 화가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담았다.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에 말을 걸고 자신만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낸 에드워드 호퍼의 삶과 작품들은 인간과 예술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